

내달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행정

내달부터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건설·교통행정이 일부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0평 초과건물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

## 도시재정비엔 용도지역·용적률 증수제한 등 일부 해제 자동차 등록번호판 11월부터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도시재정비 축진 특별법 실시=7월부터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증수제한 등 건축제한도 일부 풀린다. 또 병원과 학원, 본사 사무소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의무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공급해 왔지만 7월부터는 수도권외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보호 강화=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자정후 정거장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보호 강화=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 대우건설 매각 정밀 실사

## 금호아시아나그룹 내달 3일부터 45일간 옛 대우 비밀금융조직 우발채무 규모 관심

대우건설 매각 정밀 실사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정밀 실사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돼 45일간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자산관리공사와 금호아시아나측은 오는 29일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캠코측은 다음 달 중순께 정밀 실사가 끝나면 다시 45일간 최종 가격 협상을 마무리한 뒤 9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당초 본계약은 8월말로 예정됐으나 대우건설 노조의 실사 저지 움직임과 대우그룹 분할 매각에 따른 복잡한 책임관계, 우발채무 발생 등을 고려해 9월말까지 늦춰 잡았다고 캠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계는 금호아시아나측이 6

조6천억원으로 알려진 매각 대금을 깎기 위해 우발채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우건설의 우발채무는 옛 대우그룹 시절 비밀 금융조직이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관련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 관련 법정 소송 건 등이다.

캠코 관계자는 "BFC 등에서 예상되는 대우건설의 우발채무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문 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계약기간을 한달 늦춰 9월말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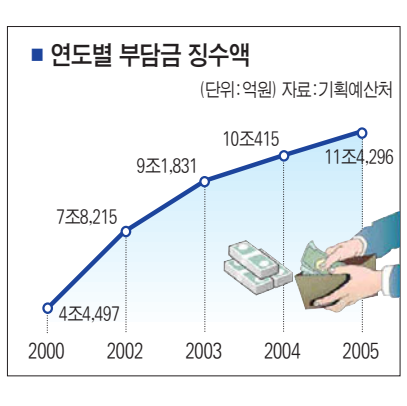
# 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23만8,000원

## 총 11조 4,296억원...전년보다 14% 증가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이 작년엔 1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천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다 13.8%가 늘었다.

작년 인구 4천800만명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천원으로 계산됐다.



조232억원보다 43.8%, 4천479억원이 늘었다.

석유수입 부과금이 작년 1월1일부터 8월 8일에서 14원으로 환원됐고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이 1당 4천3천778원에서 6천2천283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2천282억원에서 6천97억원으로 3천815억원이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은 2천186억원에서 4천458억원으로 2천272억원이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4천733억원에서 5천954억원으로 1천22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97개 부담금 총액은 작년엔 7조161억원으로 전년의 7조2천921억원보다 2천760억원이 감소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3조2천313억원(전체의 28.3%), 환경분야에 2조113억원(17.6%), 보충·금융분야에 1조8천179억원(15.9%), 보건·의료분야에 1조2천915억원(11.3%), 건설·교통분야에 8천302억원(7.3%) 등이 각각 사용됐다.



여름철 과일 살구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7일 선보인 살구를 고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살구는 피로회복, 식욕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여름철 과일인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8월부터 분양 민간·공공아파트 3%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민간·공공 아파트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 및 공공 분양주택의 3% 범위내에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청약제도 개편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된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 전체 분양주택 6천767가구의 3%인 203가구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험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추첨이 아닌 분양가격수와 무주택기간을 감안, 우선 순위를 가리는 방안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소식/

### 삼성전자 60나노 2기가 원앤드 개발

삼성전자는 60나노 공정을 적용한 2기가비트(bit) 원앤드 드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앤드(OneNAND)는 읽기 속도가 빠른 노어 플래시의 장점과 쓰기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구현이 가능한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융합한 차세대 퓨전 반도체. 이번에 개발된 2기가비트 제품은 한번에 4킬로바이트(Byte)를 처리할 수 있어 쓰기 속도가 초당 9.3메가바이트에서 17메가바이트로 2배 가량 향상됐다.

또 여러 개의 칩을 차례로 쌓아 고용량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2기가비트 원앤드 8개를 적층할 경우 초당 최대 136메가바이트까지 쓰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원앤드는 PC,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 디지털 TV 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현대상선 日서 3년연속 최우수 선사상

현대상선이 일본의 '소니(SONY)'사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는 매년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경쟁력, 선대 규모,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우수 선사를 선정하는데, 현대상선은 20여개의 세계 해운업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소니의 컨테이너 물량 중 2만 TEU를 수송했으며 올해는 약 50% 증가한 3만 TEU를 수송해 3천5백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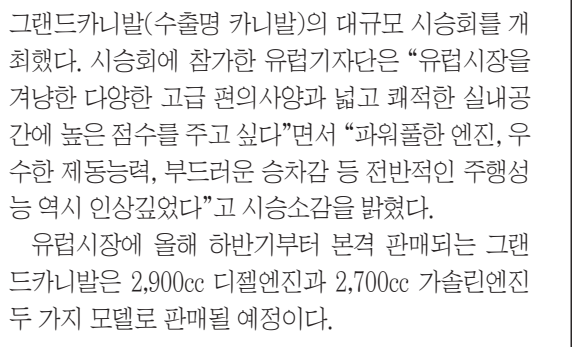
현대상선측은 "3년 연속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것은 철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상선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기아차 유럽서 그랜드카니발 시승회

기아 그랜드카니발(사진)이 유럽 현지판매에 앞서 대대적인 신차 보름 출시했다.

기아자동차측은 최근 유럽지역 자동차 전문기자단 240명을 벨기에 아르덴(Ardenne) 지역으로 초청,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시장에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그랜드카니발(수출명 카니발)의 대규모 시승회를 개최했다. 시승회에 참가한 유럽기자단은 "유럽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고급 편의사양과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파워풀한 엔진, 우수한 제동능력, 부드러운 승차감 등 전반적인 주행성능 역시 인상깊었다"고 시승소감을 밝혔다.

유럽시장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되는 그랜드카니발은 2,900cc 디젤엔진과 2,700cc 가솔린엔진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될 예정이다.



### 포스코, 열연·냉연제품 가격 인상

포스코가 국제 철강재 가격의 회복 움직임과 철광석 수입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올들어 처음으로 열연과 냉연 등 철강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철광석 수입가격과 철강재의 국제 가격 상승함에 따라 다음달 13일 주문분부터 열연과 냉연, 전기아연도금관 등의 제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주문분부터 열연 고로재는 t당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오르고 미니밀재는 4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냉연제품은 t당 60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한빛메디칼	정규직 병원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9	062-262-3611
지성정보통신	이동통신 전산인력 및 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72-2019
두원산업개발	건설 사무 및 공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268-5695
기민정보시스템	실력있는 .NET 개발자 (중국어 가능)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30	062-653-2879
남해종합개발	[건설안전]안전관리경력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30	062-220-2514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 방문지도고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366-7220
중앙철강	현장시공직 남직원 (경력자우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3	062-374-6991
비브리온코리아	Part time 간호사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09	02-3459-1914
씨큐넷	SK텔레콤 CRM센터 고객상담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10	062-364-7955
바이오닉스	해외영업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15	062-973-8811
아카데미연구소	결혼상담사 자격증 과정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412-3200

(광주점코리아 512-6210 제공)

**아파트 대출 환영**

월 0.58% (년 7%)

시중은행대출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年 5.32%

무등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승인

T. (062) 223-5506

**인터넷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내달부터 신규 발급 중단**

다음달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27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범용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이 7월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6월30일 이전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7월 이후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신용카드/보험용 공통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